

예배회복 X

왕과 제사장 사역의 회복과 상관관계

1. 다윗의 마음

[사도행전 15:16-17] 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초대교회 사도들이 함께 모여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한다. 이것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방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그들이 함께 모여 결의한 말씀이 바로 '아모스 9:11절'이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는 결의였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것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마인드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결의와 같다.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다윗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고백이다. 다윗의 전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 '장막' (sukkah) - 임시 오두막 (장막절) : 장막은 연약한 우리 육신을 의미한다. 연약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는 존재이다. 다윗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평생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비결 또한 알고 있었다. 그들이 넘어갈 난관은 쉬운 난관은 아니었다.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넘어갈 수 없는 난관이었다. 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 어려운 일이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터진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 내 능력을 넘어선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의 고백처럼 '다윗의 마인드'가 회복되어야 한다.

2. 열쇠

[요한계시록 1:17-18] 17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3: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성경에서 보면 열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요한계시록 1:18에 기록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요한계시록 3:7에 기록된 다윗의 열쇠에 대한 기록들이다. 열쇠의 기능은 닫힌 것을 여는 것이다. 무엇을 열었는가? 천국을 열고, 지옥의 권세를 닫는 것이다. 축복의 문을 열고, 능력의 문을 열고, 저주의 문을 닫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7을 보면 다윗의 장막처럼, 예수님이 직접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셨다. 다윗의 열쇠는 무엇인가?

(1) 아담과 하와 - 하늘의 열쇠를 잃어버림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열쇠가 있었다. 그들에게 언제나 하늘은 열린 문이었다. 그 문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의 열쇠를 잃어버렸다 (육이 되어버림). 그리고 셋째 하늘이 아니라, 두 번째 어둠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하늘이 그들을 덮친다.

(2) 예배 - 레위기

하나님은 다시 하늘문을 여는 법을 가르치신다. 레위기는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기록이다. 아침, 저녁으로 절기마다 피로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이스라엘 위에 하늘이 다시 열린다. 그들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을 의미한다.

(3) 사람의 왕을 원함

이런 이스라엘은 다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왕을 원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다.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어떤 왕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어떤 왕이 서느냐에 따라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했다. (사울과 다윗의 비교) '그들의 왕국은 열린 하늘의 결과물'이다.**

3. 히스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권능의 나라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통치가 일어나려면 먼저 '제사장직'이 회복되어야 한다. 멜기세덱이 그 예이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며 살렘의 왕이었다. 멜기세덱은 왕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형이다. 왕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는 제사장 직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회복될 수 없다. 이 영적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이다. 히스기야 때 제사장과 왕이 구별되어 있었다. 위기의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 왕인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역대하 29:1-11] 1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3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와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6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와 성소를 등지고 7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8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9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10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시라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역대하 29:16] 제사장들도 여호와와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와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와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히스기야 왕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볼 일은 왕이 제사장을 깨운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람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왕이 아니다. 언약한 장막(수컷)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4. 다윗

[히브리서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왕이지만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제사장을 깨웠다. 시편을 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고백이 시편 말씀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해서 사탄의 두 번째 하늘을 돌파하라는 것이다. 우리 안에 다윗의 영이 깨어나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보고 싶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대에 다시 다윗처럼 경배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

5. 제사장 사역의 회복

교회가 하늘을 여는 열쇠를 잃었다.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하늘을 구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제사장직이 회복될 때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가득해야 한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다. 그 찬양은 하늘문을 열었다. 그때 삼손과 같은 힘이 부여졌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다. 모세가 산을 올랐다. 제사장이 올라가는 산이다. 그곳에서 여호와와 영광을 보았다. 그와 같은 자들이, 여호와와 산에 오르게 될 사람들이 오를 것이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시편 24편).

*** 정의와 공의를 아는 세대 - 보혈의 능력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한다.** (히브리서 - 하나님을 보고싶은 강권적인 마음), 얼굴을 들어 본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를 일으키신다. 그 어느 때보다 갈망과 목마름이 깊어질 것이다. 이 다윗의 열쇠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을 열 수 있다.